

화물차 위험한 갓길 주차에...또 심야 사망사고

광주서 승용차가 중앙선 넘어 주차 화물차 추돌...튀르키예인 3명 참변 차고지 부족에 고질적인 불법 주차 여전...주차장 확보·강력 단속 필요

광주에서 심야시간에 외국인 3명이 탄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1일 새벽 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한 도로에서 20대 외국인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차량에는 튀르키예 출신 외국인 3명이 숨져 있었다. 사고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불법주차된 화물차(17t)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을 뿐 아니라 인근에 CCTV도 없어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불법주차 화물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도심 도로와 주택가 곳곳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사고도 불법주차된 대형 화물차가 없었다면 3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에서 매해 심야 불법 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화물차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진행해 5932건(2020년)→5356건(2021년)→4062건(2022년)으로 점차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8월까지 3013건이 적발됐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하남산업단지 사고 현장 주변에는 화물차 수십대가 즐지어 주차돼 있었다.

산업단지 내 진공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광산구 하남동) 주변에서도 차고지가 아닌 외부에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광주에서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 박모(50)씨는 화물차 불법 주차의 이유로 "화물차량 등록 시

실제 차고지에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등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곳곳에 더 많은 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화물차 중 차고지 등록이 모두 완료된 차량은 총 1만 1680대에 달한다.

이들 차량의 밤샘주차(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정해진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

또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버스타 화물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기 전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차고지 대신 광주시 도심 도로변 혹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운전자들이 주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거나 지정차고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주택가까지 대형 화물차들이 점령된 상태다.

광주지역 화물차고지는 공영 2곳(병동·진곡 총 440면)과 민영 2곳(각화·풍암 총 661면)이다. 두 차고지 면수를 다 합해도(총 1100여면)등록된 대형화물차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단속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5t 이상은 20만 원, 1.5~5t 이하는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과징금이 기름 값보다 더 저렴해 과징금을 내고 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주차 문제와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주차금지구역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주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화물차 주차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또는 단속 강화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새벽 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하남산업단지에서 튀르키예인 3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3명이 숨졌다. (위·광주광산소방서 제공) 같은날 오후 사고현장 주변 도로에 화물차가 여전히 불법 주차돼 있다.

이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곡각지점이나 가로등이 없는 곳 등 특정 위험 구간을 선정해 어린이보

호구역처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여성 유권자에 비아그라 준 전 순천시의원 2심도 벌금형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며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전직 순천시의회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순천시의회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으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 순천의 한 마을에서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의 형이 너무 가중하다며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 감경 대상이고, 당시 예비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법체류 외국인 주택 골라 "신고 못할거야" 빈집털이

불법체류 외국인 주거지를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31일 40대 남성 A씨를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 주택에 침입해 15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불법체류외국인의 숙소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도난 피해에도 신고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의 거주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지계차에 치여 작업자 사망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대불산단) 컨테이너박스 야적장에서 20대 작업자가 지계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31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의 한 물류회사 컨테이너박스 야적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지계차에 20대 남성 B씨가 치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계차에 실린 컨테이너(가로 3.3m, 세로 2.4m, 높이 2.8m)때문에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동림호 납북' 여수 선장, 50여년 만에 누명 벗는다

검찰, 광주고법 항소심 재심서 "수사기관 강요 행위 있었다" 인정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림호 선장 신평욱(84)씨가 50여 년 만에 명예회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 심리로 열린 납북어부 신씨에 대한 항소심 재

심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강요된 행위로 인해 과거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고, 추가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인이 무죄라고 검찰도 보고 있으니, 항소심 재판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라면 항소 자체를 취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기일을 더 진행해 재심 진행 절차를 정리하기로 했다.

신씨는 1971년 5월 20일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

에서 조기를 잡다 선원 8명과 함께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이듬해인 1972년 5월 10일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그가 일부러 어뢰함계를 넘어 북한으로 가 1년간 사상교육, 간첩지령을 받았으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혐의를 씌웠다.

신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973년 9월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괴지역임을 알고 자의로 들어간

이상 북괴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1974년 1월 만기 출소한 그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다.

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한편, 신씨 외에도 광주고법에는 동림호 납북어부 5명(3개 사건)의 재심 개시가 결정돼 추가 재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탁성호 납북어부 5명(1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대출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